

유황회수용 촉매 “초읽기”

세기화학, 건조제 포함 연간 2200톤규모 생산 추진

촉매산업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국내 화학산업계에서 무기촉매 생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. 그동안 유기과산화물을 공급해온 세기화학(대표 이상환)이 정유·천연가스산업 등에 사용되는 유황회수용 촉매 CSR-2와 건조제 촉매인 SUNBEAD-AT 생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연산 2200톤 생산능력의 이번 계획은 일본의 촉매화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, 94년말까지 설비를 완료하고 95년초부터 제품 판매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. 세기화학은 2200톤 중 500톤을 일본의 촉매화성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해 생산량의 50%에 달하는 1000여톤을 수출하며 나머지 1000여톤은 국내에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 CSR-2와 SUNBEAD-AT는 수산화알루미늄(Al_2O_3)을 건조소성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 수요는 연간 1000여톤 정도이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국내에 공급되는 수입품은 ALCAN, KAISER, ALCOA, CCIC 등이 있으며 가격은 C&F 톤당 1300~15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. 세기화학의 이번 무기촉매 생산은 자동차용촉매를 제외하고 생산이 거의 전무할 뿐 아니라 대기업에서조차 투자를 꺼리고 있는 국내 촉매산업에 중소기업이 진출함으로써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대기업과 정부의 연구지원 및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. 유황회수용촉매는 석유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중 유황성분을 흡착·제거하며 기타 천연가스산업, 석유화학산업, 석탄산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. 또 건조제는 공기중의 수분을 흡수·제거하는 촉매로 주로 공기건조기에 내장되어 사용되는데 대단위 전자기업에서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 한편, 국내 촉매산업의 취약함과 함께 수요기업들이 외국산 제품을 선호해 외국의 설비를 도입하면서 촉매를 함께 수입하는 등의 관례로 볼때 촉매산업이 어느정도 성공을 거둘지는 의문시되고 있다, 또 촉매의 연구개발 결과가 생산과 연결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어 촉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·학·연·정부의 공동보조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1994/9/12>